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정자원 수준 및 집단별 생활만족도

Family Resourc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 수 박 미 석**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박사수료 김 미 영***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Mee Sok Park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h.D Candidate Miyoung Kim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s access to family resources (economic and relationship) and to examine how this affects their life satisfaction. Data were drawn from the second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e sample consisted of 3,265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aged between 45 and 60, who had childre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OVA and the Scheffé test using SPSS 18.0.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their access to economic and human relationship resources. In additi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predicted by their access to economic and human relationship resources. In particular, the life satisfaction of group (A), who had low economic resource access but high

* 본 연구는 2011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주저자: 박미석(msp@sm.ac.kr)

*** 교신저자: 김미영(snow1205@naver.com)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at of group (B), who had access to high economic resources but had low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family resources. A number of policy implications were made.

Key Words : 중년기 기혼남녀(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가정자원(family resources),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 대인적 자원 (human relationship resources),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I. 서론

가정체계는 다양한 자원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며 성장해간다. 물질 및 경제적 자원과 인적 자원, 환경 자원 등은 가족 및 구성원들의 근접 거리에서 체계의 유지·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을 이해하는데 있어 보편성뿐만 아니라 다원성이라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일률적인 생활주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생애 단계에서 전환기와 정착기가 교차되는 시기로서, 생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측면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최정숙, 2009). 이에 김명자(1998)는 중년기를 생물학적·문화적 변동의 복합적 작용이 일어나며,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발달단계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새로운 정책적 대상으로까지 제기되고 있는 베이비부머는 중년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들은 주로 문제 중심적 접근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차성란(2012)은 베이비부머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정책, 역사, 사회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개념이며, 기인 세대, 중간 세대 등으로 표현하였다.

사회와 가정체계 내의 중간 세대로서 중년기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정자원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우선 가정생활에 있어 대표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은 가정 체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하였지만 최근 중년기의 남녀 모두는 실직, 준비 없는 은퇴, 생계를 위한 취업 등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워킹푸어(working poor), 리타이어푸어(retire poor)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원은 중년기 가정의 쟁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경제적 자원과 상호 대체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인적 자원은 구성원 및 그들의 긍정적 관계로부터 발현되는 자원으로, 대인적 자원의 영향력 역시 가정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9년 국내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제시한 ‘신가족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대인적 자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는 불황에 따른 생활고 확대로 자살과 생계형 범죄 등 사회병리현상이 늘어나지

만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불안감을 가족구성원의 연대감으로 극복하고자 하며, 특히 일에만 매달려 왔던 직장인들은 구조조정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재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노후를 앞둔 중년기 가정에게 경제적 자원 확보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여가 및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정서적 측면의 관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경향신문, 2012. 4. 24). 그러나 대인적 자원은 체계 내 젠더에 따라 그 인식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 중심으로 살아온 중년 남성들은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소외를 경험하며 중년기 퇴직 남성의 경우 퇴직 후 경제적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가정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하였다(변화순·이미정·김지경·하현정, 2007). 또한 가정 체계 내에서 다양한 관계에 얽혀 역할 과중을 경험하는 중년 여성들 역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자원 수준을 통해 개인 혹은 가정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질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대란 등의 영향으로 중년기 가정의 경제적 자원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흐름 안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열악한 경제적 자원의 일방적인 부정적 메커니즘 특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지만, 경제적 자원을 제외한 그 밖의 가정 자원이 삶의 질이나 생활 만족도와 같은 가정체계의 산출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고,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 가정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욕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자원 특성과 수준의 차이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파악하고, 그러한 자원들과 중년기 가정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정보는 향후 중년기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 개발 시 그들의 욕구를 보다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고, 경제적 지원이나 관계측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지원 중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기 특성

생애주기 중 다른 발달 단계보다 뒤늦게 관심을 받기 시작한 중년기는 명확한 기간 및 정의 확립의 어려움, 중요한 생활사건 발생의 시기상 불규칙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역사적 맥락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김명자, 1998). 특히 최근에는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중년기의 동시집단적 특성과 급격한 사회변화가 결합하면서 표출되는 다양한 이슈들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특성으로 제기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중년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자마다 중년기를 정의하는데 있어 다양한 기준을 취하고 있는데, 모든 연령을 수렴해 보면 30세부터 70세라는 상당히 넓은 범위 안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김명자, 1998; 변화순 외, 2007; 최정숙, 2009). 그러나 일반적으로 40대에서 60대 중반까지를 중년기로 보고 있으며, 1955년부터 1963년까지에 속하는 베이비부머의 연령적 특성과 평균연령 및 생애주기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40대 중반에서 60세까지를 중년기의 연령 범위로 보고자 한다. 또한 세대와 사회에서 끼인 집단으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중년기는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

한다. 중년기 남녀의 심리적 복지감과 경제, 건강, 사망, 자녀 학교진학 등과 같은 가정생활사건 경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년기 남녀 모두는 경제적 영역의 사건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민·한경혜, 2004).

중년기는 젠더에 따른 차이도 중요한 특성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중년기 남성들은 주로 직업 및 대인관계 등의 영역에서 위기를 경험하며, 가정환경자원 중에서 부부유대, 부모자녀유대, 결혼기간, 경제상황 등이 남성들의 사회적 위기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고기숙·이혁구, 2004).

또한 중년기 여성들의 위기감은 남성과는 약간 다르게 건강, 관계 등에서 주로 접근되기는 하였지만 최근에는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그들의 다양한 욕구 및 위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이복희·박아청·이경혜, 2010; 조옥희·김경신, 2005; 신기영·옥선화, 2000). 홍달아기·이남주(2006)는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을 살펴보기 위해 정서적 위기감, 결혼불만족, 활력의 상실, 자녀관계 불만족, 생의 불만족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결혼 및 자녀관계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위기감에 대해 부정적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관계적 측면에서의 위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년기 남녀의 부모됨에서의 심리학적 특성을 파악한 Pudrovska(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 역할 구성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2. 가정자원

가정자원은 가정체계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이나 목표 달성 등 관리행동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활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실제적인 측면이다(홍성희·김혜연·김성희·윤소영·고선강, 2008). 가정자원을 분류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각자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인적 자원, 경제적 자원, 환경적 자원으로 구분되기도 하고(Nickell, Rice & Tucker, 1976), 환경체계의 구분에 따라 개인적 자원, 가족체계적 자원, 사회적 지지 자원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McCubbin, Conneau & Needle, 1980). 국내에서는 심리적 자원, 가족관계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분류하기도 하였다(신화용·조병은, 2001).

자원을 이론적으로 접근한 Foa의 자원이론은 사회심리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맥락 안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축적하고 사용한다고 보았다(Moore & Asay, 2008). 자원 이론은, 사랑, 지위, 정보, 화폐, 재화, 서비스 등의 6가지 형태로 자원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특수성(보편성)과 구체성(상징성)을 기준으로 대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으로 다시 구분하였다(김외숙·이기영, 2010). 무엇보다 Foa의 자원이론은 대인간에 서로 다른 자원을 주고받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경제적 자원만큼이나 인적 자원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조수진·이기영, 2011). 그리고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이 갖는 특성은 시간, 관계, 집단크기, 보상의 연기, 주고받기, 복잡성 등의 6가지의 규칙에 의해 설명되며 그 규칙에 따라 대비되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김외숙 외, 2010).

Retting, Leichtentritt와 Stanton(1999)은 자원이론을 토대로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이혼 가정 아버지들의 생활만족도를 6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경제적 복지감과 가족 간 의사소통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조수진 외(2011)가 자원이론 기준에 따라 애정, 지위, 정보, 서비스 등을 인적자원으로 정의하고 취업모와 자녀 간 자원 교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어머니는 자녀에게 서비스와 애정을, 자녀는 어머니에게 정보

자원을 가장 많이 제공한다고 하여 자원의 종류뿐만 아니라 자원이 갖는 교환적인 성질을 설명하였다.

자원이론에 따른 선행연구들에서의 두 자원의 구분은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 특성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파악한 중년기의 사회와 가족 안에서의 끼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경제적 자원과 다양한 변인으로 구성된 대인적 자원 수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자원이 갖는 다양한 기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년기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변인

생활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하며, 전반적인 가정생활을 포함한다고 하였다(김현화·조병은, 1992; 임효영·김경신, 2001). 가정체계의 관리과정을 통해 산출된 질적 측면의 결과로서 생활만족도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뿐만 아니라 행복감, 적응, 삶의 질 등 다양한 산출의 개념을 포함해서 그에 대한 영향변인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정자원은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두 자원이 생활만족도와 갖는 관계를 주로 살펴보고 기타 변인들도 정리하여 그 안에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 경제적 자원과 생활만족도

경제적 자원은 중년기 가정에 있어 성공적인 노후생활과 연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가장 실체적인 측면의 자원으로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앞당겨진 은퇴 시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자원이다. 경제적 자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자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복희 외(2010)는 중년기 취업여성의 가계경

제수준이 자아존중감, 역할적응, 자아정체감 등과 갖는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였는데, 자아정체감 형성에 직접적인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 가계경제수준을 제시하였다. 조옥희 외(2005) 역시 중년기 취업 주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 가족, 취업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수입과 취업에 대한 동기가 경제적 동기가 아닐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원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금운·윤가현(1998)은 중년기 직장 여성의 다중역할 특성과 생활만족도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가계경제생활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고, 가계경제에 기여 수준이 높을 경우에 생활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 및 복지감에 대한 경제적 자원 효과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노민옥·박경란(2008)은 중년 남성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스트레스를 파악하였는데, 중년기 남성은 경제생활 스트레스를 가장 높이 지각하였고 소득 수준이 충분하지 못할 때 그들의 우울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중년기 퇴직 남성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력을 제시하고, 중년남성들은 수입 중단에 의한 경제적 궁핍을 가장 고통스러워한다고 하였다(변화순 외, 2007).

젠더에 따른 구분 없이 가정체계로 접근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지현·김태현(2011)은 생활만족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중년기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다양한 변인 중 가계소득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임서진·어성연(2011)은 생태학적 요인을 통해 중년기 성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경제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살펴보면 주택소유여부가 삶의 질과 정서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을 소득 중심으로 접근해 왔는데, 서지원(2012)은 경제적 자원을 소득, 소비지출, 저축 및 자산, 부채, 노후정책 신뢰도 등으로 구조화하여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만족 수준을 분석하였고, 일과 자녀교육 등을 경제만족 수준에 차이를 가지고 오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2) 대인적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인적 자원은 체계 내 구성원들의 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원으로, Foa의 자원이론에 의하면 사랑, 지위, 정보 등으로 설명되며 이를 통해 관계 안에서의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성질의 실제적 자원까지 포함될 수 있다.

서지원(2008)은 생활만족도보다는 협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중년기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복지감에 갖는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두 자본 모두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사회적 자본에 혼인상태, 비금전적 지원 자녀수, 자녀와의 연락빈도 등 관계가 바탕이 되는 가족 관련 변수 등을 포함시켰다.

Koropecykj-Cox(2002)는 중년기 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였는데,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좋지 않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은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은아(2007)는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하였는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임소진 외(2011) 역시 중년기 성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가족 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결혼한 상태일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대인적 자원이 갖는 효과를 설명하였다. 김유정·안정신(2011)은 중년기 성인의 심리

적 복지감에 미치는 변인들을 생애과정적 시각에서 접근하였는데 가족관계 안에서의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일본 중년여성의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를 파악한 연구에서는 노부모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지만 그러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사회적 지지의 형태 중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가족관계는 스트레스 요인일수도 있지만 동시에 완충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강란혜, 2008). 이는 Foa의 자원이론에서 대인적 자원의 특성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방향적일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명순·임은자(2010)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변인들을 부부관계 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자아정체감에 중요한 영향변인임을 밝혀 대인적 자원의 효과를 알게 하였다. 그리고 은퇴를 경험한 중고령 부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대인적 자원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자녀와 친척들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였다(신화용 외, 2001).

대인적 자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대인적 자원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에는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등의 객관적 지표 등과 관계만족도, 의사소통, 정서적 지지 등 주관적 지표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기타 자원과 생활만족도

중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는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 이외에도 인적자본으로 설명되는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자본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연결망, 최근에는 정부 정책이나 서비스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성란(2012)은 보다 거시적 입장에서 베이비부머의 사회적자본의 역할에 주목하였는데, 사회적 자본으로부터의 경제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에서의 지지를 강조하였고, 가족친화 마을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인 사회활동 중 자원봉사활동과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기혼여성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가족의 호응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전외술·이승현·손명익, 2006). 중년 세대가 갖는 또 다른 집단적 특성으로서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 정도,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 소득 등의 요소는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안현선·김효민·안진경·김양희, 2009). 그 밖의 중년기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건강증진행위, 여가만족도, 직업 스트레스 등이 제시되었다(이은아, 2007; 류승아·김경미·최인철, 2011; 오은택·오현욱, 2011).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경제적 및 대인적 자원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경제적 및 대인적 자원에 따른 생활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구분한 집단 간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한국고령화연구패널(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008년도 2차 자료를 사용하여, 2008년 현재 4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년기 기혼남녀들을 추출하였다. 한국고령화연구패널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2006년 1차 조사에 이어 2008년 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내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만족도 등 총 7개 영역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경제 및 대인적 자원의 비교 분석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국가 데이터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의 비교를 위하여, 45세에서 60세까지의 현재 혼인 중에 있고 자녀가 있는 자를 선별하여 최종 3,26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구 형태를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은 무엇보다 자원의 기능을 비교해보기 위한 연구자의 편의적 선택으로서, 두 자원의 단순 비교보다는 다양한 가정 자원 중에 의미있는 자원을 추출해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사에 포함된 대상들의 평균연령은 53.18세로 나타났고, 성별은 남성이 1,479명으로 45.3%였으며, 여성이 1,786명으로 54.7%를 차지하여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구성되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무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20.3%, 중학교 졸업 이하가 20.3%, 대학교 이상은 15.3%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녀의 종교 유무는 거의 비슷하였지만 종교가 있는 사람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50%(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0% 이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조사대상자의 46.9%가 대도시

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중소도시(34.8%), 읍면부(19.3%) 순으로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중년기 기혼남녀들의 노동활동 여부를 알아본 결과 66%가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들의 취업형

태는 임금고용직이 33.4%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25%), 무급가족봉사자(7.6%)가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모임, 동창회/향우회, 자원봉사, 정당 등 총 6가지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여부를 물어본 결과 중년기 기혼남녀들은 평균 1.31개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한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55%, 두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25.1%, 세 가지 이상에 참여하는 사람이 8.1%였으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11.8%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 3,265)

구 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479	45.3
	여자	1,786	54.7
연령 (M=53.18세)	45-49세	777	23.8
	50-54세	1,208	37.0
	55-60세	1,280	39.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663	20.3
	중학교 졸업	663	20.3
	고등학교 졸업	1,440	44.1
	대학교 졸업 이상	499	15.3
종교유무	종교 없음	1,616	49.5
	종교 있음	1,649	50.5
거주 지역	대도시	1,532	46.9
	중소도시	1,137	34.8
	읍면부	596	18.3
소득수준	중위소득 50% ↓	1,663	50.9
	중위소득 50% ↑	1,602	49.1
노동활동 참여여부	참여	2,156	66.0
	비참여	1,109	34.0
고용형태	임금고용직	1,091	33.4
	자영업	817	25.0
	무급가족봉사자	248	7.6
사회활동 참여개수 (M=1.31)	1개 참여	1,796	55
	2개 참여	819	25.1
	3개 이상 참여	266	8.1
	비참여	384	11.8

3. 연구도구

1)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고, 생활만족도에 대한 각 자원의 영향뿐만 아니라 자원의 교차를 통한 집단별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한국고령화연구패널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단일 척도를 사용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며 태도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관리과정으로 산출된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에 대한 본인의 평가 수준은 생활만족도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이며, 0점에서 100점까지의 범위 내에서 중년기 기혼남녀들이 본인의 상태를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중년기 기혼남녀의 경제적 자원

가정자원이란 가정체계의 욕구충족 및 목표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수단으로 사적 및 공적형태 혹은 노동활동 등으로부

터의 소득은 생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소득만을 경제적 자원으로 포함시켰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적 기능을 갖는 경제적 자원으로 소득 이외에 주거형태, 금융자산보유정도, 부동산 소유여부, 부채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3) 중년기 기혼남녀의 대인적 자원

중년기 기혼남녀에게 대인적 자원은 도구적 역할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시한 바대로 가정 내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자원을 대인적 자원으로 조작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등을 대인적 자원으로 구성하였다. 관계만족도는 정서적 측면의 자원으로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바 있다.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 자료에서 단일 척도로 사용되었으며, 0점에서 10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중년기 기혼남녀의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의 상호작용

본 연구는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의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관리체계의 목표달성 및 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영역을 보다 확장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원이 가정생활에서 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앞에서 살펴본 중년기의 복잡한 특성은 그러한 일방적인 메커니즘의 적용에 변화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자원들의 영향력 비교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수준 및 관계만족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생활만족도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에 대한 두

자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득수준은 경제적 자원에 속하는 변인으로서, 대인적 자원에 비해 객관적 기준을 통한 집단화에 용이한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의 구분을 위해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였다. 강신옥·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2005)은 OECD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된, 즉 빈곤한 가구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는 상대적 빈곤율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중위소득은 3,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집단과 그 이상의 소득을 갖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대인적 자원 부분은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를 합쳐 가족 관계 만족도로 새롭게 구성하여 평균 이상인 경우에 ‘상’ 집단, 평균 미만인 경우에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된 집단의 자원 수준과 관계만족도 중심의 대인적 자원 수준을 교차시켜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원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해 중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독립변인의 효과와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집단의 생활만족도 측정을 위해 ANOVA 및 사후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 및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정자원 수준

1) 중년기 기혼남녀의 경제적 자원 수준

중년기 기혼남녀의 경제적 자원 수준을 소득, 주거형태, 금융자산, 부동산 보유 여부 및 부채유무 등으로 살펴본 결과 소득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남녀 모두에게 자가 비율이 전세, 월세 등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현금 및 예금, 저축성 예금, 주식 및 투자, 채권, 저축성 보험 등으로 구성된 금융자산은 여성의 보유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와 금융기관, 개인, 채무 등의 부채 등은 남성의 보유 비율이 더 높았다(<표 2> 참조).

<표 2>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자원 수준
(N = 3,265)

구 분	남(1,479)		여(1,786)		
	빈도	%	빈도	%	
총소득 (3,618만원)	3,747만원		3,511만원		
주거형태	자가	1,196	44.9	1,466	55.1
	전세	160	47.6	176	52.4
	월세	104	46.2	121	53.8
	기타	19	45.2	23	54.8
금융자산	없음	708	47.3	788	52.7
	있음	771	43.6	998	56.4
부동산 소유여부	없음	1,142	43.2	1,503	56.8
	있음	337	54.4	283	45.6
부채유무	없음	1,254	43.1	1,658	56.9
	있음	225	63.7	128	36.3

2) 중년기 기혼남녀의 대인적 자원 수준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정 내 대인적 자원을 배우자 관계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중

<표 3> 조사대상자의 대인적 자원 수준
(0점~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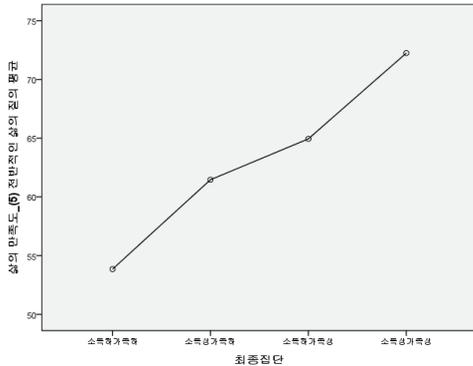
구 분		배우자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남	평균	71.81	75.30
	표준편차	15.893	15.973
여	평균	68.42	74.75
	표준편차	17.271	14.789
전체	평균	69.96	74.94
	표준편차	16.743	15.220

심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자녀와의 관계를 만족스러워 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중년 기혼여성은 중년기 남성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3> 참조).

2.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정자원과 생활만족도

1) 중년기 기혼남녀의 경제적 자원에 따른 생활만족도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경제적 자원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경제적 자원은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를 약 1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기혼남녀들의 생활만족도는 소득이 많을수록, 자기집을 기준으로 하여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자기집에 거주할 경우,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부채가 없을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선정한 경제적 자원 모두와 생활만족도는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네 집단의 생활만족도 평균비교

〈표 4〉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전체)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총소득	.001	.000	.151	.000
주거형태 ^a				
전세	7.625	2.436	.178	.002
월세	3.576	2.560	.065	.163
기타	-3.439	2.630	-.052	.191
금융자산	4.193	.570	.126	.000
부동산	4.579	.709	.108	.000
부채	-2.364	.891	-.044	.008
(상수)	53.236	2.441		.000
R ² (adj. R ²)	.118(.116)			

a기준 : 자가

2) 중년기 기혼남녀의 대인적 자원에 따른 생활만족도

경제적 자원에 이어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대인적 자원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생활만족도를 약 35%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 관계 만족도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대인적 자원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전체)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배우자 만족도	.373	.021	.389	.000
자녀 만족도	.299	.024	.275	.000
(상수)	17.122	1.572		.000
R ² (adj. R ²)	.350(.349)			

3.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정자원의 상호작용 분석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정자원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 중의 소득수준과 대인적 자원의 배우자 및 자녀관계 만족도를 합쳐 가족관계 만족도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중년기 기혼남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네 집단 간 평균은 F값 186.17로 유의확률

〈표 6〉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의 이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결과 (전체)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소득 (하)	가족관계 만족도(하)	517	53.85 (A)	15.740
	가족관계 만족도(상)	1,146	64.94 (C)	16.908
소득 (상)	가족관계 만족도(하)	391	61.46 (B)	13.984
	가족관계 만족도(상)	1,211	72.25 (D)	14.069
F			186.17***	

.000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후분석 결과는 네 개 집단 모두에서 평균차이를 지지하였고, 소득(상)-가족관계만족도(하)집단과 소득(하)-가족관계만족도(상)집단의 평균차이는 .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나머지 집단들의 평균차이는 .000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소득(하)-가족관계만족도(상) 집단이 소득(상)-가족관계만족도(하) 집단보다 생활만족도 평균이 높게 나타난 점은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주로 경제적 자원으로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려고 했던 기존의 관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7>, <표 8>과 같다. 성별에 따른 결과는 전체 분석의 경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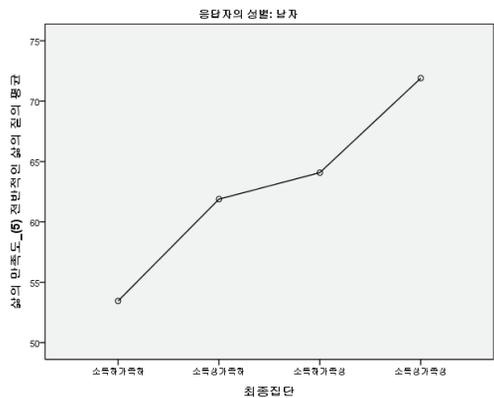
중년기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우 소득(하)-가족관계만족도(상)집단과 소득(상)-가족관계만족도(하)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의 상호작용 효과는 중년기의 전체적 특성으로 이해해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중년기 기혼남성의 생활만족도의 이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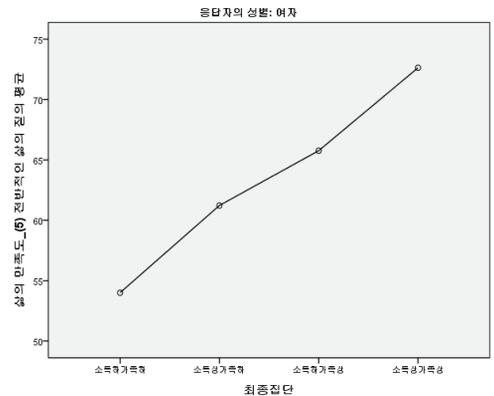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소득(하)	가족관계만족도(하)	145	53.45	15.740
	가족관계만족도(상)	559	64.08	17.159
소득(상)	가족관계만족도(하)	138	61.88	14.825
	가족관계만족도(상)	637	71.90	14.330
F			67.280***	

〈표 8〉 중년기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의 이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소득(하)	가족관계만족도(하)	372	54.01 (A)	15.759
	가족관계만족도(상)	587	65.76 (C)	16.639
소득(상)	가족관계만족도(하)	253	61.23 (B)	13.528
	가족관계만족도(상)	574	72.63 (D)	16.594
F			119.475***	



〈그림 2〉 중년기 남성의 집단별 생활만족도 평균 비교



〈그림 3〉 중년기 여성의 집단별 생활만족도 평균 비교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정자원 수준과 그 가정자원에 따른 생활만족도 및 두 가정자원의 수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생활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가정자원을 Foa의 이론에 따라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으로 구분하였고 한국고령화연구패널(2008년) 2차 자료 안에서 적절한 변수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4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년기 기혼남녀 3,26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중다회귀분석, 이원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그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자원 중 경제적 자원에는 소득, 주거형태,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 등이 포함되었고, 소득이 많을수록, 자기집에 거주하는 경우,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부채가 없을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심리적 복지 및 생활만족도 등에 수입 및 가계경제생활수준이 중요한 영향 변인임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대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역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한 이은아(2007)의 연구나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중년기 성인들은 그들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임소진 외(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특히 경제적 자원이나 대인적 자원이 성별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난 점을 통해 중년기의 욕구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둘째, 중년기 기혼남녀의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의 상호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하)-가족관계만족도(상)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소득(상)-가족관계만족도(하) 집단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가족관계 자원, 즉 대인적 자원의 효과를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기준으로 정한 중위소득 50%는 우리나라에서 빈곤을 측정하는 표준으로서, 50% 이하의 경우에는 보통 빈곤가구로 정의하는데 빈곤 가정일지라도 가족관계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경제적 자원의 결핍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일방적 메커니즘보다는 그 안에서 대인적 자원이 가질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상황의 변동, 갑작스러운 퇴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신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범위를 경제적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관계에 대한 심리·정서적 상담 및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해 생활 변화로부터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선강(2009)의 연구에서는 실제 인터뷰를 통해 경제위기에 따라 생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가족구성원 중 특히 여성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및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년기 생활만족도의 소득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성별에 따른 구분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비교 집단인 소득(하)-가족관계만족도(상) 집단과 소득(상)-가족관계만족도(하)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중년여성에 비해 중년남성에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중년기 남성의 생활만족도 및 복지감에는 그 무엇보다 경제적 자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들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요인이라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년남성들

은 생애과정동안 대부분의 에너지를 가족관계보다는 직업생활에 집중함으로써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결혼만족도와 같은 가족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서정아·한경혜, 1998; 장미자·김득성, 2011). 그러나 최근 베이비부머라는 동시집단이 표출하는 중년기의 문제 중, 특히 중년기 남성들의 관계 자원에서의 소외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정신보건센터를 찾는 중년기의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베이비부머 가정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2012. 5. 7). 이에 따라 중년기 남성이 삶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양가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변화순 외(2007)는 중년기 남성들의 솔직한 감정표현 등의 심리적 측면의 변화와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등을 강조하였다. 김미영·손서희·박미석(2011) 역시 중고령 남성들은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 후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도울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서지원(2012)은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가족생활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경제적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년기 가정의 다양한 니즈에 접근한 경제, 가족생활교육, 은퇴 준비 등의 세분화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집단 내부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정자원을 추출하여 그것이 생활만족도와 갖는 관계를 고찰하였다. 국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는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패널데이터의 한계인 변수의 제한성을 단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oa의 자원이론에 따라 가정자원의 범주를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 자원으로 설명될 수 있는 변인들을 패널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그러나 가정자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포괄적 특성으로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변인들은 그 내용과 범위를 규정짓기에 무리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세부 변인 이외에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이 더욱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 및 대인적 자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추출하여 정책 및 프로그램 구성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적 자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변인들을 배우자 및 자녀 관계 만족도로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상,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중년기 기혼남녀만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연령, 생활사건 등을 공유하는 동질의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집단의 내부 상황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년기의 다양한 특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자원을 비교함으로써 자원의 상호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경제적 자원에 대해 대인적 자원의 효과가 검증되었고, 자원들의 메커니즘이 일방적이기보다는 보다 복합적이고 상호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인적 자원의 효과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 경제적 자원의 결핍을 가족관계 만족이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 경제적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관계 향상 프로그램 역시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가정자원들의 상호 조절효과를 검증한다면 기존

정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되던 방식인 문제 접근에서 자원 혹은 강점 접근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란혜(2008). 일본의 중년기 여성 생활스트레스와 반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3(1), 127-150.
- 2) 강신옥·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고기숙·이혁구(2004). 중년기 직장 남성의 사회적 위기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가족환경 특성 및 자원봉사 경험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 9-41.
- 4) 고선강(2009). 주부의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질적 접근: 경제위기에 대한 개별가정의 이해와 대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99-118.
- 5) 김경민·한경혜(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 생활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211-230.
- 6) 김금운·윤가현(1998). 중년기 직장여성의 다중역할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 생성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1), 88-102.
- 7)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8) 김미영·손서희·박미석(2011). 한국 중고령 남성의 은퇴경험과 은퇴 후 삶의 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65-78.
- 9) 김외숙·이기영(2010). 가족자원관리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10) 김유정·안정신(2011). 중년기 성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성인기 이전 생활사건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한국노년학, 31(3), 445-461.
- 11) 김현화·조병은(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207-228.
- 12) 노민옥·박경란(2008). 중년기 직장남성의 생활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7(2), 255-269.
- 13) 류승아·김경미·최인철(2011). 중년기 여가 생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4), 415-434.
- 14) 박지현·김태현(2011).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229-257.
- 15) 변화순·이미정·김지경·하현정(2007). 중년기 퇴직남성 부부의 갈등과 적응.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6) 서정아·한경혜(1998). 가족 및 직업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65-177.
- 17) 서지원(2006). 사회자본으로서의 가족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1-14.
- 18) 서지원(2008). 중년기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상대적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15-332.
- 19) 서지원(2012).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41-66.
- 20) 신기영·옥선화(2000).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8(8), 29-51.
- 21) 신화용·조병은(2001). 남편이 은퇴한 부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1), 39-51.

- 22) 안현선·김효민·안진경·김양희(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37-155.
- 23) 오은택·오현옥(2011). 중년기 위기감과 건강증진행위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0(6), 325-336.
- 24) 우명순·임은자(2010). 중년기 기혼 남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친밀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개발연구, 16(4), 393-415.
- 25) 이복희·박아청·이경혜(2010). 중년기 취업 여성의 가계경제수준, 자아존중감, 역할적응 및 자아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03-120.
- 26) 이은아(2007). 중년기 남성의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6(3), 547-562.
- 27) 임서진·어성연(2011). 중년기 성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 분석: 생태학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129-147.
- 28) 임효영·김경신(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89-203.
- 29) 장미자·김득성(2011). 개인내적 특성과 가족 특성 및 직업만족도가 중년남성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베이비붐 세대기업 근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9(2), 1-11.
- 30) 전외술·이승현·손명익(2006). 중년기 기혼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경주시를 중심으로-. 경주연구, 15, 159-184.
- 31) 조수진·이기영(2011). 일·가정양립태도와 환경이 취업모가 지각한 모자간 자원제공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6), 23-37.
- 32) 조옥희·김경신(2005).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관련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개인, 가족, 직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1-29.
- 33) 차성란(2012).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미래 사회적 자본-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67-83.
- 34) 최정숙(2009). 중년기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7, 175-208.
- 35) 한국노동연구원(2009).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2008년 제2차 기본조사 사용자안내서.
- 36) 현은민·임보래·장경문(2006).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관련 특성과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23-38.
- 37) 홍달아기·이남주(2006). 중년기여성의 위기감과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2), 227-237.
- 38) 홍성희·김혜연·김성희·윤소영·고선강(2008).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자원관리. 서울: 신정.
- 39) 경향신문(2012. 4. 24). 노후 준비 돈·건강만 챙기세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241824125&code=920301
- 40) 뉴시스(2012. 5. 7) 베이비부머 자녀와의 소통은?...물심양면 지원보다 사랑표현부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ticle&ar_id=NISX20120504_0011081846
- 41) Koropecykj-Cox, T.(2002). Beyond parental status: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dle and old 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57-971.
- 42) McCubbin, H., Conneau, J., & Needle, R.(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855-871.

- 43) Moore, T. & Asay, S.(2008). Family resource management. Thousand Oaks, CA: Sage.
- 44) Nickell, P., Rice, A. & Tucker, S.(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Edition). New York, NY: Wiley.
- 45) Pudrovska, T.(2008).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motherhood and fatherhood in midlife: evidence from sibling mode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168-181.
- 46) Retting, K., Leichtentritt, R., & Stanton, L.(1999). Understanding noncustodial fathers' family and life satisfaction from resource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20, 507-538.

- 투 고 일 : 2012년 6월 26일
- 심 사 일 : 2012년 7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8월 3일